

#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와 마음을 찾는 친구들

## 제1부: 예상치 못한 여행

### 제1장: 잿빛 초원의 소녀

아주아주 멀리, 미국 캔자스라는 곳의 드넓은 초원 한가운데에 도로시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도로시가 사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답니다. 뜨거운 햇볕이 오랫동안 내리쬘어 풀잎 끝이 타들어가 잿빛이 되었고, 도로시가 헨리 아저씨, 엠 아주머니와 함께 사는 작은 나무집도 잿빛으로 바래 있었죠. 심지어 오랫동안 힘들게 일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얼굴에도 잿빛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도로시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를 무척 사랑했지만, 가끔은 저 회색 하늘 너머, 무지개 너머 어딘가에 있을 반짝이는 세상을 꿈꾸곤 했어요. 도로시의 유일한 색깔은 바로 작고 까만 강아지 토토였답니다. 꼬리를 살랑이며 재롱을 부리는 토토는 잿빛 세상 속에서 도로시를 웃게 만드는 유일한 즐거움이었죠. 도로시는 토토를 꼭 껴안고 생각했어요. ‘분명 어딘가에는 이 잿빛과는 다른, 알록달록한 세상이 있을 거야.’ 그 마음이 바로, 곧 시작될 놀라운 여행의 씨앗이었습니다.

### 제2장: 회오리바람의 노래

어느 날 오후, 하늘이 평소보다 더 짙은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북쪽에서부터 낮게 우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려오더니, 남쪽에서도 날카로운 휘파람 같은 바람이 불어왔죠.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춤을 추듯 다가오고 있었어요! 헨리 아저씨는 지하 대피소로 소리쳤지만, 토토가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는 바람에 도로시는 미처 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오리바람에 휩쓸려 공중으로 솟아오른 집은 꿈쩍하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커다란 구름 위에 실린 것처럼 부드럽게 떠 있었죠. 도로시는 토토를 품에 꼭 안고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무섭기보다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신기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회오리바람은 마치 거친 노래를 부르며, 도로시를 아주 먼 곳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 제3장: 파란색의 나라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이 ‘쿵’ 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함께 땅에 내려앉았어요. 도로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숨을 멈췄죠. 세상에! 온 세상이 눈부신 색깔로 가득했어요. 잿빛 캔자스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양중맞은 둥근 지붕의 집들은 온통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예쁜 울타리도 파란색이었어요. 바로 그때, 키가 작은 사람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다가왔어요. 그들은 바로 먼치킨 나라의 사람들이었죠.

그들 사이로 눈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자신을 북쪽의 착한 마녀라고 소개하며 말했어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의 집이 동쪽의 나쁜 마녀 위로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 먼치킨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도로시는 어리둥절했지만, 자신이 누군가를 도왔다는 사실에 조금은 기뻐했어요. 착한 마녀는 나쁜 마녀가 신고 있던 반짝이는 은색 구두를 도로시에게 주었어요. 그 구두는 마치 달빛을 잡아다 만든 것처럼 신비롭게 빛났죠. 어쩌면 이 구두는 도로시가 원래 살던 잿빛 세상과 이 마법의 세계를

이어주는 비밀스러운 연결고리였을지도 몰라요.

## 제4장: 노란 벽돌길

도로시는 착한 마녀에게 캔자스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그건 아주 어려운 소원이구나. 위대한 마법사 오즈만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에메랄드 시티로 가서 그를 찾아보렴.” 마녀는 노란 벽돌로 만들어진 길을 가리켰어요. 그 길은 파란색 마을을 가로질러 저 멀리까지 밝게 빛나고 있었죠. 도로시는 토토를 안고 용기를 냈어요. 조금은 외롭고 무서웠지만,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죠. 도로시는 반짝이는 은색 구두를 신고, 희망처럼 빛나는 노란 벽돌길 위로 첫발을 내디뎠어요. 앞으로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로시의 진짜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 제2부: 친구들의 동행

### 제5장: 짚으로 만든 사람

노란 벽돌길을 따라 한참을 걸던 도로시는 길가의 옥수수밭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장대 위에 서 있는 허수아비가 외로운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었거든요. “안녕?” 도로시가 인사를 건네자, 허수아비가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어, 나한테 말한 거니? 난 머릿속이 짚으로만 가득 차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바보 허수아비야. 똑똑한 뇌를 가질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

도로시는 친절하게 허수아비를 장대에서 내려주었어요. 그런데 허수아비는 자기가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똑똑한 구석이 있었어요. 길이 끊겼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슬기롭게 조언해주기도 했죠. 도로시는 허수아비에게 말했어요. “나랑 같이 에메랄드 시티로 가지 않을래? 오즈의 마법사라면 너에게 멋진 뇌를 주실지도 몰라.” 허수아비는 기뻐하며 도로시의 첫 번째 여행 친구가 되었답니다. 사실 허수아비에게 부족한 것은 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 제6장: 양철로 만든 사람

숲속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온몸이 양철로 된 나무꾼이 도끼를 든 채 꼼짝도 못 하고 서 있었어요. 온몸이 녹슬어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나쁜 마녀의 저주 때문에 진짜 사람이 아닌 양철 몸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심장을 잃어버렸다고 슬프게 이야기했어요. “심장이 없어서 사랑도, 슬픔도 느낄 수 없단다.”

도로시가 기름칠을 해주자 양철 나무꾼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는 심장이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아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길을 가다 작은 벌레라도 밟을까 봐 조심조심 걸었고, 친구가 슬퍼하면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함께 슬퍼했죠. 눈물이 떨어지면 몸이 녹슬까 봐 얼른 닦아내야 했지만요. 도로시는 양철 나무꾼에게도 함께 가자고 했어요. “오즈의 마법사라면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심장을 주실 거야.”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의 두 번째 친구가 되었어요. 그는 심장이란 가슴에 다는 장식품이 아니라, 다른 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행동 그 자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답니다.

### 제7장: 동물의 왕의 두려움

친구들이 숲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어흥!”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길을 막아섰어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깜짝 놀라 넘어졌죠. 사자는 토토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도로시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서며 사자의 코를 때리고 소리쳤어요. “이 겁쟁이야! 너보다 작은 강아지를 괴롭히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그러자 놀랍게도, 커다란 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저앉았어요. “흑흑, 맞아. 나는 겁쟁이야. 내 우렁찬 목소리는 전부 허세라고. 나는 동물의 왕이면서도 용기가 하나도 없어.”

사자는 용기를 얻는 것이 소원이라고 털어놓았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그런 사자를 위로하며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오즈의 마법사라면 분명 너에게 진짜 용기를 주실 수 있을 거야.”

겁쟁이 사자는 기뻐하며 도로시의 세 번째 친구가 되었어요. 사자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진짜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더라도 소중한 친구를 위해 맞서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 제8장: 숲속의 위험

친구들은 함께라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하지만 숲은 점점 더 깊고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길 앞에 아주 깊은 골짜기가 나타났어요. 건너갈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하던 그때, 허수아비가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양철 나무꾼, 네 도끼로 저기 큰 나무를 베어서 다리를 만들면 어떨까?” 정말 멋진 생각이었죠!

양철 나무꾼이 힘껏 나무를 베어 멋진 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다리를 건너기 시작하자, 숲 저편에서 무시무시한 괴물 두 마리가 나타났어요. 곰의 몸에 호랑이의 머리를 한 ‘칼리다’라는 괴물이었죠. 사자는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덜덜 떨면서도 괴물들을 향해 버티고 서서 아주 큰 소리로 포효했어요. 그 덕분에 친구들은 무사히 다리를 건널 수 있었죠. 칼리다들이 다리 위로 올라오자, 허수아비가 다시 소리쳤어요. “나무꾼, 어서 다리 끝을 잘라 버려!” 양철 나무꾼이 재빨리 도끼로 다리 끝을 내리치자, 칼리다들은 아득한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답니다. 허수아비의 지혜, 양철 나무꾼의 행동, 그리고 사자의 용기가 모두를 구한 거예요.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미 얼마나 멋진 능력을 가졌는지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 제9장: 잠자는 꽃밭

어두운 숲을 빠져나오자 눈앞에 끝없이 넓은 양귀비 꽃밭이 펼쳐졌어요. 새빨간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꽃에서는 아주 달콤하고 졸린 향기가 났어요. 그 향기를 맡은 도로시와 토토, 그리고 사자는 그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숨을 쉴 필요가 없는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만 멀쩡했죠.

둘은 잠든 도로시와 토토를 안고 꽃밭 밖으로 나왔지만, 커다란 사자는 너무 무거워 옮길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때, 양철 나무꾼이 들고양이에게 쫓기던 작은 생쥐 한 마리를 구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생쥐는 들쥐들의 여왕이었죠! 여왕은 고마움의 표시로 수천 마리의 들쥐들을 불러 모았어요. 허수아비는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양철 나무꾼에게 작은 수레를 만들게 하고, 들쥐들에게는 긴 끈을 가져오게 했죠. 모두가 힘을 합쳐 잠든 사자를 수레에 싣고 꽃밭 밖으로 끌어냈답니다. 아주 작은 친구들의 도움이 커다란 사자를 구한 거예요. 이처럼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언제나 길을 열어준답니다.

## 제3부: 환상의 도시

### 제10장: 에메랄드 성문

마침내 친구들은 저 멀리 초록빛으로 반짝이는 에메랄드 시티에 도착했어요. 성문 앞에는 초록색 옷을 입은 문지기가 서 있었죠. 문지기는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모두 특별한 초록색 안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도시의 빛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죠.

안경은 작은 자물쇠로 잠겨 있어서 마음대로 벗을 수도 없었어요. 안경을 쓰자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것이 에메랄드빛으로 보였어요. 건물도, 사람들의 피부도, 심지어 하늘까지도요. 도시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도로시는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 모든 초록빛이 진짜일까, 아니면 단지 안경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걸까? 하는 의심이 살짝 들었습니다.

## 제11장: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

친구들은 한 명씩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옥좌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즈는 친구들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도로시에게는 거대한 머리의 형상으로, 허수아비에게는 아름다운 요정의 모습으로, 양철 나무꾼에게는 무시무시한 괴물의 모습으로, 그리고 사자에게는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오즈의 목소리는 방 전체를 찌렁찌렁 울렸어요.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서쪽 나라로 가서 사악한 서쪽 마녀를 없애고 오너라!” 친구들은 겁이 났지만,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오즈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들은 위대한 마법사가 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직접 마녀를 몰리치지 않는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 제4부: 마녀의 도전

### 제12장: 노란색의 나라

서쪽 마녀가 다스리는 왕키의 나라는 온통 노란색이었어요. 즐겁고 밝은 노란색이 아니라, 어딘가 불안하고 경고하는 듯한 노란색이었죠. 마녀의 성 역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사악한 서쪽 마녀에게는 아주 특별한 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눈으로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망원경처럼 내다볼 수 있었어요. 마녀는 자신의 성에서 도로시와 친구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심술궂게 웃었어요. “감히 내 땅에 발을 들여놓다니! 저 반짝이는 은 구두는 내 것이 되어야 해!”

### 제13장: 날개 달린 원숭이

마녀는 먼저 굶주린 늑대 떼를 보냈지만, 양철 나무꾼이 도끼로 위협하여 쫓아버렸어요. 다음엔 까마귀 떼를 보냈지만, 허수아비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혼란스럽게 만들어 몰리쳤죠. 화가 난 마녀는 마침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마법인 황금 모자를 꺼내 들었어요. 주문을 외우자, 하늘이 새까맣게 변하더니 수많은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나타났어요. 원숭이들은 황금 모자의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했어요. 그들은 허수아비의 몸에서 짚을 모두 빼내고, 양철 나무꾼을 바위 위로 던져 찌그러뜨렸어요. 그리고 겁쟁이 사자를 붙잡아 우리에 가두었죠. 하지만 도로시의 이마에는 북쪽 마녀의 보호의 입맞춤 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원숭이들은 도로시를 다치게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마녀의 성으로 데려갔답니다.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로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어요.

### 제14장: 물 한 양동이

도로시는 마녀의 성에서 바닥을 닦는 등 힘든 일을 해야 했어요. 마녀는 도로시의 은 구두를 뺏기 위해 계속 기회를 엿봤죠. 어느 날, 마녀는 보이지 않는 철사로 도로시를 넘어뜨려 구두 한 짝을 빼앗는 데 성공했어요. 바로 그때, 마녀는 구석에서 몰래 도로시를 지켜보던 허수아비(마음씨 착한 왕키들이 몰래 고쳐주었어요)를 발견하고는 장난삼아 그의 짚에 불을 붙였어요.

“안 돼!” 친구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본 도로시는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던 물 한 양동이를 집어 허수아비에게 확 끼얹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그만 옆에 서 있던 서쪽 마녀에게도 튀고 말았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악한 마녀가 “으악, 내가 녹는다!” 소리치며 설탕처럼 스르르 녹아내려 바닥에 물웅덩이로 변해버렸답니다. 도로시는 마녀를 물리치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소중한 친구를 구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 착한 마음이 결국 사악한 마법을 이긴 거예요.

## 제15장: 왕키들의 자유

마녀가 사라지자, 오랫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왕키들은 기뻐하며 자유를 만끽했어요. 그들은 도로시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찌그러진 양철 나무꾼을 망치로 펴서 고쳐주고, 허수아비의 몸에 새 짚을 가득 채워 주었죠. 친구들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왕키들은 마음씨 착하고 다정한 양철 나무꾼에게 자신들의 새로운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양철 나무꾼은 도로시를 집에 보내준 후에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답니다. 도로시는 마녀가 남긴 황금 모자를 발견했어요. 이제 모자의 주인은 도로시였죠. 도로시는 날개 달린 원숭이들을 불러 모두를 에메랄드 시티로 데려다 달라고 명령했어요. 마침내 친구들은 오즈에게 마녀를 물리쳤다는 소식을 전하러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 제5부: 진실과 집으로 가는 길

### 제16장: 커튼 뒤의 남자

친구들은 당당하게 오즈의 옥좌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오즈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댔죠. 바로 그때, 호기심 많은 토토가 방구석에 있는 커튼 뒤로 쭉쭉 달려가 왈왈 짖었어요. 커튼이 젖혀지자 그 뒤에는 놀랍게도, 마이크에 대고 목소리를 변조하며 기계를 조작하고 있는 머리가 벗겨진 평범한 할아버지가 숨어 있었어요. 그가 바로 위대하고 무서운 오즈의 정체였어요. 그는 사실 마법사가 아니라, 미국 오마하에서 온 서커스단 기구 조종사였어요. 오래전 열기구가 바람에 날려 이곳 오즈에 불시착했고, 사람들을 속여 마법사 행세를 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친구들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할아버지가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 제17장: 가짜 마법사의 선물

오즈는 진짜 마법은 없지만,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허수아비의 머릿속에 거와 핀, 바늘을 섞어 넣어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자네는 아주 날카로운 ‘새 두뇌(bran-new brains)’를 갖게 되었네.” 허수아비는 정말로 머리가 똑똑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다음으로 양철 나무꾼의 가슴에는 예쁜 비단으로 만든 심장을 넣어주었어요. 그 안은 톱밥으로 채워져 있었지만, 양철 나무꾼은 가슴에서 따뜻한 심장이 뛰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사자에게는 초록색 물약을 주며 말했어요. “이것은 용기라는 것이다. 이걸 마시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지.” 사자가 물약을 마시자 정말로 온몸에 용기가 솟아나는 것 같았어요. 사실 그 선물들은 마법의 물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그 상징적인 선물을 통해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기를 드디어 믿게 되었답니다. 진짜 마법은 오즈가 준 선물이 아니라, 친구들 마음속에 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등장인물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대표적인 예)	마법사의 선물 (상징)
허수아비	똑똑한 뇌	칼리다를 물리칠 나무 다리 계획을 세움	거와 핀으로 채워진 ‘새 두뇌’

등장인물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 (대표적인 예)	마법사의 선물 (상징)
양철 나무꾼	사랑하는 마음	들쥐 여왕을 구해주는 따뜻함을 보임	톱밥으로 채워진 비단 심장
겁쟁이 사자	용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해 칼리다에 맞섬	‘용기’라고 불리는 초록색 물약
도로시	집으로 가는 길	처음부터 마법 구두를 신고 있었음	글린다의 지혜

## 제18장: 떠나버린 열기구

오즈는 자신도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커다란 열기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도로시와 토토를 함께 데려가 주기로 했죠. 에메랄드 시티의 모든 시민들이 나와 그들의 출발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도로시가 열기구에 오르려는 순간, 토토가 장난치는 새끼 고양이를 보고 품에서 뛰쳐나갔어요. 도로시가 황급히 토토를 잡으러 간 사이, 그만 열기구를 묶어두었던 밧줄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열기구는 오즈 할아버지만 태운 채 하늘 높이 떠올라 버렸어요. 도로시는 다시 혼자 남겨졌죠. 하지만 에메랄드 시티의 시민들은 이제 자신들을 이끌어 줄 새로운 지도자를 얻었어요. 바로 지혜로운 허수아비였답니다.

## 제19장: 남쪽의 착한 마녀

도로시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에메랄드 시티의 한 병사가 남쪽 나라의 착한 마녀 글린다라면 도로시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어요. 이제 각자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게 된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사자는 소중한 친구 도로시가 혼자 여행하게 둘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도로시를 위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길을 떠나주기로 했죠. 그들의 우정은 무엇보다 강하고 단단했으니까요.

## 제20장: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

친구들은 마침내 글린다의 아름다운 성에 도착했어요. 진정으로 지혜롭고 친절했던 글린다는 도로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그리고 도로시가 내내 모르고 있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었죠. “아가, 네가 신고 있는 은 구두가 바로 너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마법의 구두란다. 뒤통치를 세 번 부딪치며 가고 싶은 곳을 말하기만 하면 된단다.”

도로시는 그동안 집으로 돌아갈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이 모든 여행은 그 힘을 깨닫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어요. 도로시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한 명씩 꼭 껴안으며 눈물의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절대 너희를 잊지 못할 거야.” 도로시는 구두 뒤통치를 딱! 딱! 딱! 세 번 부딪치며 외쳤어요. “엠 아주머니에게, 집으로 데려다줘!”

## 에필로그: 다시 캔자스로

눈을 떠보니 도로시는 잿빛 풀밭 위에 누워 있었어요. 발에 있던 은 구두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죠. 저 멀리 헨리 아저씨가 새로 지은 작은 집이 보였고, 엠 아주머니와 헨리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오고 있었어요. 도로시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캔자스의 풍경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더 이상 도로시의 마음은 잿빛이 아니었어요. 도로시의 마음속에는 에메랄드 시티의 초록빛과, 친구들과 함께했던 노란 벽돌길의 햇살과, 수많은

모험의 색깔들이 가득했으니까요. 도로시는 아주머니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세상에 집만 한 곳은 없어요.” 집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장소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 참고 자료

1. The Significance of Color in The Wonderful Wizard of Oz - Childhood's Books @ Pitt, <https://childhoodsbooks.wordpress.com/2018/11/09/the-significance-of-color-in-the-wonderful-wizard-of-oz/>
2. Symbolism In The Wizard Of Oz - 769 Words - Bartleby.com, <https://www.bartleby.com/essay/Symbolism-In-The-Wizard-Of-Oz-PCCWNTKBR6>
3. In The Wizard of Oz (the original), when everything is in black and white, is that how the Kansas characters actually see their world in the universe? : r/wizardofoz - Reddit, [https://www.reddit.com/r/wizardofoz/comments/1kaihq9/in\\_the\\_wizard\\_of\\_oz\\_the\\_original\\_when\\_everything/](https://www.reddit.com/r/wizardofoz/comments/1kaihq9/in_the_wizard_of_oz_the_original_when_everything/)
4. Wizard Of Oz Color Analysis - 442 Words - Cram, <https://www.cram.com/essay/Wizard-Of-Oz-Color-Analysis/PCFCDZNEE6V>
5.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꿈과 희망을 노래하다 - Toolify.ai, <https://www.toolify.ai/ko/ai-news-kr/9w5nuuzyvcmjztct657iqa9blbsl71n-3458051>
6. The Wonderful Wizard of Oz by L. Frank Baum - Full Text Archive, <https://www.fulltextarchive.com/book/The-Wonderful-Wizard-of-Oz/>
7. The Wonderful Wizard of Oz Chapters III–IV Summary & Analysis | SparkNotes, <https://www.sparknotes.com/lit/wonderful-wizard-of-oz/section2/>
8. Chapter 3 - The Wonderful Wizard of Oz, [https://bookunitteacher.com/reading\\_oz/oz3.pdf](https://bookunitteacher.com/reading_oz/oz3.pdf)
9. [15분 완독] 인생 최대의 시련을 마주한 당신이 봐야 할 고전 - 라이먼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ao-YbtDWkuo>
10. 오즈의 마법사 (r175 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8%A4%EC%A6%88%EC%9D%98%20%EB%A7%88%EB%B2%95%EC%82%AC?uid=835ac661-80a6-4f8e-a9ed-f7f80568dd02>
11. 오즈의 마법사 (r610 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8%A4%EC%A6%88%EC%9D%98%20%EB%A7%88%EB%B2%95%EC%82%AC?rev=610>
12.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 - 크리스천라이프, <https://christianlife.nz/archives/11229>
13. 마음을 두둥실 휘감은 무지개 너머, 영화 <오즈의 마법사> \*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유명한 작품일수록 잘 읽어보지 않게 된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대충은 아니까? 다른 고전도 유명한 문구만 - 씨네랩, [https://cinelab.co.kr/insight\\_sub\\_details.html?i\\_id=497](https://cinelab.co.kr/insight_sub_details.html?i_id=497)
14. 오즈의 마법사 (r644 판)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8%A4%EC%A6%88%EC%9D%98%20%EB%A7%88%EB%B2%95%EC%82%AC?uid=83e2ea9b-349c-462b-9b14-b691fe9c2c9e>
15. I forgot how creepy the original Wizard of Oz was (spoilers) : r/books - Reddit, [https://www.reddit.com/r/books/comments/stetme/i\\_forgot\\_how\\_creepy\\_the\\_original\\_wizard\\_of\\_oz\\_was/](https://www.reddit.com/r/books/comments/stetme/i_forgot_how_creepy_the_original_wizard_of_oz_was/)
16. Chapter 8 - The Wonderful Wizard of Oz, [https://bookunitteacher.com/reading\\_oz/oz8.pdf](https://bookunitteacher.com/reading_oz/oz8.pdf)
17. 오즈의 마법사 동네서점 땡스북스, <http://www.thanksbooks.com/site/thanksbooks/index.php/weekly/-/>
18. The Wonderful Wizard of Oz: Chapters VII–IX | SparkNotes, <https://www.sparknotes.com/lit/wonderful-wizard-of-oz/full-text/section5/>
19. Chapter 7: The Journey to the Great Oz - Under the Home Online Homeschool Curriculum - Prose Lesson, <https://www.underthehome.org/prose/lesson?textbooktitle=The%20Wonderful%20Wizard%20of%20Oz&lessonitle=Chapter%207&grade=2>
20. 오즈의 마법사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8%A4%EC%A6%88%EC%9D%98%20%EB%A7%88%EB%B2%95%EC%82%AC>
21. The Wonderful Wizard of Oz: 7. The Journey to the Great Oz, <https://www.cs.cmu.edu/~rgs/oz-7.html>
22. The Wonderful Wizard of Oz Chapters VII–IX

Summary & Analysis | SparkNotes,  
<https://www.sparknotes.com/lit/wonderful-wizard-of-oz/section4/> 23. The Wizard Of Oz. Chapter  
8. The Deadly Poppy Fields.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cgN6KEfvrQ> 24.  
The Wonderful Wizard of Oz: Chapter 09 - Book Units Teacher,  
<https://bookunitsteacher.com/wp/?p=1737> 25. [Opinion] 감동적인 명작 동화 『오즈의 마법사』  
파헤치기 [문학] - 아트인사이트,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21065> 26.  
위키드(뮤지컬)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84%ED%82%A4%EB%93%9C\(%EB%AE%A4%EC%A7%80%  
EC%BB%AC\)](https://namu.wiki/w/%EC%9C%84%ED%82%A4%EB%93%9C(%EB%AE%A4%EC%A7%80%EC%BB%AC)) 27. [뮤지컬 집중탐구] 위키드 - 슬기로운 생활 - 티스토리,  
<https://hi-sseulgi.tistory.com/238?category=1221728> 28. 오즈의 마법사 | L. 프랭크 바움 -  
교보문고,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1810902> 29. [전자책] 오즈의 마법사 :  
알라딘,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46841231> 30. The Wonderful  
Wizard of Oz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The\\_Wonderful\\_Wizard\\_of\\_Oz](https://en.wikipedia.org/wiki/The_Wonderful_Wizard_of_Oz) 31.  
서쪽의 마녀 -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84%9C%EC%AA%BD%EC%9D%98%20%EB%A7%88%EB%85%8  
0](https://namu.wiki/w/%EC%84%9C%EC%AA%BD%EC%9D%98%20%EB%A7%88%EB%85%80) 32. The Wonderful Wizard of Oz Chapter XII Summary & Analysis | SparkNotes,  
<https://www.sparknotes.com/lit/wonderful-wizard-of-oz/section6/> 33. 오즈의 마법사,  
[http://compasspub.com/userfiles/downloads/American\\_Textbook\\_Big\\_BOOK\\_Level\\_3\\_Translati  
ons.pdf](http://compasspub.com/userfiles/downloads/American_Textbook_Big_BOOK_Level_3_Translations.pdf) 34. 오즈의 마법사 줄거리 - 세이레아트센터 - 티스토리,  
<https://sayre21.tistory.com/11132091> 35. 오즈의 마법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A6%88%EC%9D%98\\_%EB%A7%88%EB%B  
2%95%EC%82%AC](https://ko.wikipedia.org/wiki/%EC%98%A4%EC%A6%88%EC%9D%98_%EB%A7%88%EB%B2%95%EC%82%AC)